



동방경제포럼 소식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사회경제발전 가속화, 러시아로의 외국투자 유치, 아태지역의 안정과 안보 강화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이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만날 예정임.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대우, 롯데, 마즈다, 미쓰이, 중국석유공사(CNPC),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등 외국 대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 (RBK)

2018-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 에너지 협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참가하는 몇몇 세션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가 다뤄질 것이다. (인테르팍스)

러시아 수출청은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수출 잠재력 관련 세션을 진행할 예정임.

이 세션에서는 아태지역 내 국가수출과제 이행, 수출지향 사업 개발, 유명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타스통신)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야쿠티아 지방 정부는 30여개의 합의를 체결할 계획임.

극동개발청, 지방 정부, 자원채굴 기업 및 야쿠티아 진출 대기업들과 합의를 체결할 예정으로 로스아톰(원자력공사)과는 북극 인근 지역 소형 원자력발전소 개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타스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 연해주는 12개 합의를 체결할 예정임.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으로부터 석유기지 이전 합의서와 엘레나 섬 교량 건설 합의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리아 노보스티)

북위도 철로 건설 사업이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임.

이루쿠츠크~미르니~야쿠츠크를 연결해서 마가단과 오호츠크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철도 운송로 개발 사업이 현재 러시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사하미디어)

연해주 기상청 관계자들이 동방경제포럼 사이트 내 '날씨, 기후, 환경' 특별 사이트를 만들었다.

포럼 주최측, 참가자, 방문객을 위해서 매일 러시아어와 영어로 날씨 예보가 된다. (리아 노보시티)

극동 소식

야쿠티아 주택 건물 현대화 사업에 지난 5년간 270억 루블 이상이 투자됨.

이 예산은 379개의 공공 인프라 시설들과 1220km의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구축과 재정비 사업에 쓰였다. (야쿠티아 24)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있다.

www.roscongress.org